

한국학 쟁점 다룬 책 잇달아 선보인다

해당분야 논의수준 한눈에 파악케 해... 지난 연대엔 사회과학 부문 활기

한 권의 책은 대개 학자나 논객 등 저자의 피나는 고투의 결과물일 것이다. 모두들 뜨거운 가슴과 냉철한 머리를 갖고 있을지라도, 저마다 그 온도에 차이가 있어 다른 입장을 내세우게 된다. 그들이 한걸음씩 개척해나간 논의의 수준을 한눈에 파악하는 데 유용한 안내서 역할을 하는 「쟁점」 「제문제」 「연구입문」 등의 제목을 지닌 책들은 그러므로 그것을 찾는 독자들을 송구스럽게 만든다.

그러한 책들은 대개 당대 최고의 지성들이 저자·편자로 참여해 해당분야에 대한 윤곽과 개관 정도일지언정 매우 밀도높은 정보를 담고 있다. 나아가 “문제의 소재를 인식케 하고, 학계의 연구동향을 느낄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우리 문화의 폭을 반성할 수 있는 인식체계를 성립시키는 데 길잡이가 되어” 주기도 한다. (「한국사연구입문」 머리말, 한국사연구회 편, 지식산업사 판)

그리고 이러한 책들은 시간이 흐르면 수정판 내지 전면개정판이 나오거나 절판되거나 한다. 새로운 자료와 연구성과를 포괄하여 문제점이 재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시각이나 방법론이 등장하면 전면개정이 이루어짐은 물론이다. 전환기 또는 변혁기의 첨예한 쟁점을 다룬 책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시대적 이월가치가 현저히 감소하기 때문에 절판되곤 한다.

연구수준 일별할 수 있는 안내서들

쟁점을 다룬 책이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꾸준히 나오는 분야는 단연 역사학이다. 이따들어서도 「한국 근현대사의 쟁점」(이현희 저,

「쟁점」 「제문제」 「연구입문」 등의 제목을 지닌 책들은 예각을 이루는 논점들에 대해 당대의 지식인들이 한걸음씩 개척해나간 논의의 전모를 한눈에 파악하는 데 유용한 안내서가 된다. 해당분야에 대한 정보를 밀도있게 농축한 이 책들은 우리 사회 전체의 지적 수준과 역량을 가능하는 한 잣대라 할 만하다.

도서출판 삼영)과 「한국사 전환기의 문제들」(한국사연구회 편, 지식산업사)이 출간됐다. 작년말에는 반년간지인 「쟁점 한국근현대사」가 창간되기도 했다. 역사학 분야의 주된 쟁점은 근대사의 기점문제와 시대구분문제인데, 이는 단지 학문적 성과의 축적에 의해 해결될 사안이 아니고 역사적 의미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의 문제인 세계관에 걸쳐 있어 “분분한 논리가 풍성한 채 정설을 못찾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이현희(성신여대 사학과) 교수는 말한다.

「한국 근현대사의 쟁점」은 1860년을 근대의 기점으로 설정하고 1990년까지의 우리 역사를 “외국사와의 비교 속에서 쟁점 중심으로 주제적인 흐름에서 평이하게 살펴본 교양저술”로서 “각종 자료를 사료비판에 따라 적절히 활용, 기존 학설의 상당부분을 과감히 수정했

다”는 평을 듣는다. 근대사회, 현대사회, 통일시대로 나누어 서술하되, 북한사를 수렴함으로써 혹자는 “半韓史”를 ‘統韓史’로 엮은 첫 시도”라고 말하기도 한다. 한국사의 시대구분 문제를 다룬 「한국사 전환기의 문제들」은 고대국가에서 미군정에 이르기까지 역사발전 단계별로 전환기적 중요성을 띠는 문제들에 대한 중견학자들의 논문 10편으로 구성돼 있다. “임오군란 110주년 기념: 임오군란을 해부한다”를 특집으로 다루고 있는 「쟁점 한국 근현대사」 창간호는 특히 “금년도(92) 한국근현대사의 쟁점”을 정리·수록해 주목을 끈다.

그밖에 「한국현대사의 제문제 I·II」(한국사학회 편, 을유문화사), 「해방전후사의 쟁점과 평가 1·2」(한승조 외 저, 형설출판사), 「한국사의 批正」(이재호 저, 우석), 「독립운동사의 제문제」(윤병석 외 저, 범우사), 「북

한학계의 한국근대사는쟁-사회 성격과 시대구분 문제」(이병천 편, 창작과비평사) 등은 서점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책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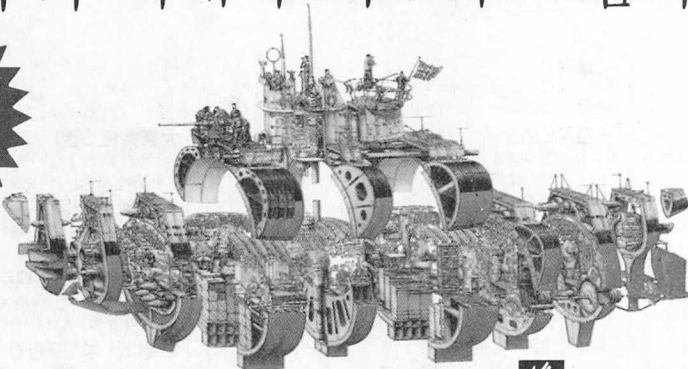
이 책들이 해방후사의 쟁점으로 꼽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건준·인공 등의 건국운동 평가, 한국현실에 대한 미군정의 인식과 대응책, 신탁통치를 둘러싼 좌우익의 대립, 좌우합작운동과 남북한지도자연석회의, 박헌영의 혁명전략전술과 무력투쟁노선, 소련의 남북한 정책과 민주기지도선, 이승만의 단정노선, 6·25, 한반도의 분단원인, 북한의 사회주의건설노선 등이다.

“한국문학의 과거와 현재를 폭넓게 전망하는 데에 극히 편리한 길잡이”를 자부한 「한국문학의 쟁점」(유종호·염무웅 편, 전예원)에서 정리한 우리문학계의 쟁점은 크게 두가지



우리 시대의 최고의 그림책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전세계 16개국에서 동시 출판된 초특급 베스트셀러!



탱크, 점보 제트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등. 지금까지 걸 모습만 보아 왔던 거대한 구조물 187지를 가로 세로로 세밀하게 잘라, 그 내부의 구조며 명칭을 아주 자세히 보여 주는 희한한 그림책이 나왔습니다. 어린이부터 건축·미술의 전문가까지 누구나 한 번은 꼭 봐야 할 이 시대의 뛰어난 가족형 그림책 「크로스 섹션」

▶ 지금 서점에 있습니다. 울컥러·양장본/책크기 27cm×36cm

진선출판사 전화 720-5990·1

이다. 근대문학기점의 문제와 전통단절론의 극복 문제가 그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들은 60년대 이후 우리 학계의 중심적 과제로 추구되어온 “식민지 사관의 이론적 실증적 극복”과 연관돼 있다는 것이다.

백사 이우성교수의 정년퇴직 기념논문총인 「민족사의 전개와 그 문화」에서 조선후기 이후의 문학 관계 논문만을 가려 엮은 「한국근대문학사의 쟁점」(김학성 외 저, 창작과비평사)은 “우리 근대문학사의 쟁점을 민족문화론과 리얼리즘론”으로 요약한다. 이 책은 “중세해체기 한문학 유산을 통해 문체, 문학담당층, 진보적 성격, 리얼리즘의 문제 등을 역사적 운동경험으로서 더욱 확충하고, 근대문학에 있어서는 진보주의 문학운동과 리얼리즘에 대한 새로운 문제들을 제기”한다.

자료공유와 토론활성화에 존재의 지너

체계적인 문학비평사를 염두에 두고 문학비평에서 벌어졌던 논쟁의 성격규명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한국문학비평논쟁사」(김영민 저, 한길사)는 30년대 한국문학비평의 수준과 흐름을 결정지은 내용·형식 논쟁, 방향전환 논쟁, 대중화 논쟁, 순수문학이론 논쟁 등을 다룬다. 그밖에 집문당에서 펴낸 「한국문학사의 쟁점」, 흥신선씨의 「우리문학의 논쟁사」(어문각) 등이 쟁점 위주로 엮은 책들. 「한국문학연구입문」(황폐강 외 편, 지식산업사)은 “한국문학의 연구는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법에 의하여 연구되고 체계화되어야 하는가를 제시”한 수준높은 입문서로 고풍되며, 국어학 분야에서는 ‘이기문선생 회갑기념논문집’인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동아출판사)가 여러 쟁점들을 주제별 연구사 속에서 정리해 주목을 끈 바 있다.

그러나 일일이 열거할 수 없으리만큼 많은 논쟁집이 출간된 때와 분야는 80년대의 사회과학일 터이다. ‘변혁기’에서 ‘전환기’에 이르는 시대상황이 첨예한 쟁점들을 유발시켰거니와, 진보적 사회과학도들에 의해 운동과 과학을 접목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다기다종의 「쟁점」시리즈를 생산케 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국사회구성체 논쟁, 한국사회통일전선 논쟁, 변혁주체 논쟁, 사회변혁과 연관된 철학에 대한 논쟁 등에 대해 여러 논객들이 상호 비판하고 비교하는 책들이 그들이다. 최근에 나온 「사회주의의 제문제」(김홍명 저, 나남)와 근간에정인 「현대사회주의정치이론의 제문제」(최지용 저, 과학과사상) 등은 현실사회주의의 몰락을 지켜보면서도 방법론 혹은 세계관으로서의 변증법적 유물론을 ‘복원’하고자 하는 저작물이다. 그리고 「80년대 한국사회대논쟁집」(중앙일보사)은 그 기간에 벌어진 논쟁에 영향을 주거나 논쟁을 촉발시키거나, 그 논쟁들을 정리한 책들을 ‘논쟁항목’별로 집대성한 자료집이다.

예각을 이루는 논점들에 대해 그 일치점과 상이점을 점검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들 책들은 우리 사회 전체의 지적 수준과 역량을 가늠하는 한 잣대라 할 만하다. 그리고 개별·분산적인 논의·연구형태에서 이 책들은 자료를 공유하고 토론을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그 존재의의를 갖는다고 이야기된다.

— 김중식 기자

작품으로 읽어서 아는 속담의 뜻

정종진 엮음 「한국의 속담 용례사전」

국내 사전으로는 드물게, 표제로 오른 모든 항목의 용례를 일일이 찾아 명기한 사전이 최근 선보여 주목을 끌고 있다. 청주대 정종진 교수(국문학)가 펴낸 「한국의 속담 용례사전」(태학사)이 바로 그것으로, 사료배판 770여면의 방대한 분량을 자랑하는 이 사전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가 수록 속담수의 풍부함. 모두 8천5백여 속담이 수록돼 있어 1962년 초판이 나온 이기문편 「속담사전」(일조각)의 7천 항목, 북한에서 출판된 「조선속담」의 8천 항목에 비해 훨씬 많다. 속담사전으로는 지금까지 나온 것 가운데 최대규모이며, 기왕의 책들에 실리지 않은 ‘비속한’ 속담도 다수 포함돼 있다.

둘째는 책체에 걸맞게 모든 속담의 용례를 일일이 문학작품 등에서 찾아내 수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령, “오늘될 쇠불알 떨어지기 기다린다”는 속담의 경우, 이기문 「속담사전」이 “도저히 가망없는 일을 헛되이 탐내어 바라다는 말”이라고 뜻풀이만 하고 있는데 반해 이 책에서는 “비록 지금은 근심이 말마따나 뱀사내는 우리 속에 들어앉아서 그나마의 생활도 감지덕지하며 오늘될 쇠불알 떨어지기만 바라는 신세가 되긴 했으나, 스무살의 그는 꿈마다 만주벌판을 종횡으로 달렸다.”는 용례를 윤희길의 소설 「건널목 이야기」에서 찾아내 수록하고 있다. “복날 개패듯한다”는 속담은 김주영의 「객주」에서 용례를 찾아내 소개하고 있다. “어쨌거나 그날 짙은 안개 때문에 최가를 놓치고 만 만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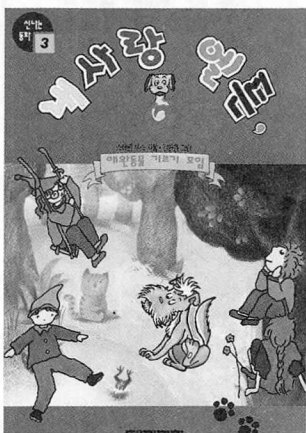
란 놈이 주막으로 되돌아와선, 제 누이가 최가와 하룻밤 살을 붙인 처지였다”는 것을 빌미삼아 사람을 얹어놓고 복날 개패듯하고는 선김에 골갈잡은 세간을 모조리 박살냈다는 것이었다.”

속담의 용례를 찾기 위해 지난 2년간 매일 서너권씩의 책을 “읽어제쳤다”고 말하는 정 교수는 문학작품이 민족어의 보물창고라는 스스로의 믿음을 확인해보자는 의도에서, 그리고 속담이 구사되는 현장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자는 생각 등에서 이 사건을 엮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아쉬운 점은 용례만 있을 뿐 뜻풀이가 없다는 것과, 용례를 찾지 못한 속담은 수록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정교수는, 전자에 대해서는 “용례를 보면 저절로 알 수 있다”는 해명을, 후자에 대해서는 “발견되는 대로 증보판에 실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사랑을 배우는 동화

오늘밤 내 아이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 말은, 「네가 가장 사랑하는 그 무엇보다도 아빠는 너를 더 사랑한다, 애야.」



I. R. K 시리즈 컬러예화집

짧다! 쉽다! 깊다! 많다!

가슴으로 읽는 현대판 「명심보감」
진실의 광장에서 나눌
대화를 준비하세요!
삶의 지혜와 감동의
寸鐵殺人의 메시지

대림기획
도서출판

서울 중구 을지로 3가 286
TEL : 02 268-4902
FAX : 02 277-6946